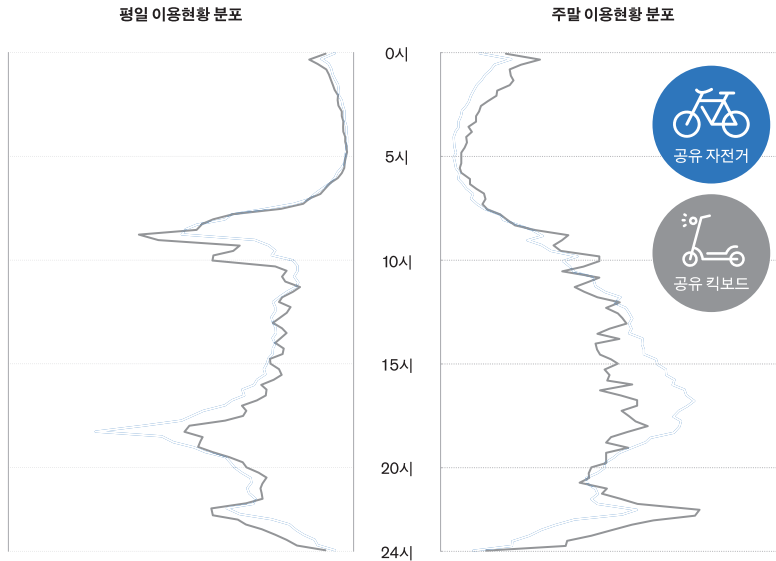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 도시공간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

건축공간연구원은 공유 자전거와 공유 킥보드의 2021년 10월 1개월간의 이용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 이용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공유 자전거 이용 특성 분석은 서울시 '따릉이' 자료를, 공유 킥보드는 (주)피유엠피에서 운영하고 있는 '쌩쌩'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 이용자 1,100명을 대상으로 이용여건에 대한 인식조사를 2022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였다. 그 조사 및 분석 내용의 일부를 통계자료실을 통해 소개한다.

Q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는 언제 많이 이용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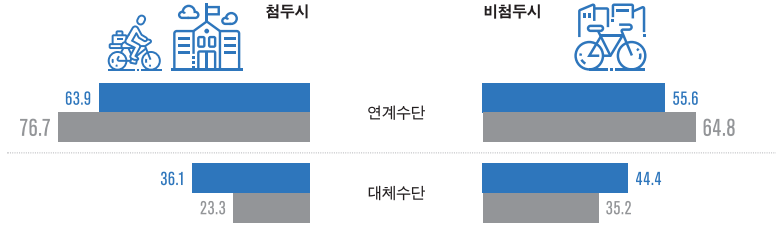
A 평일은 출퇴근 시, 주말은 낮 시간대 주로 이용하며, 심야 시간대 이용 빈도도 높음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의 이용 양상은 평일과 주말에 다르게 나타났으며, 수단 간에는 시간대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는 없었다.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와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에 이용이 집중되어 있다. 즉 평일 출퇴근 시 대중교통 연계수단 또는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주말에는 평일과 달리 오전 9시부터 이용량이 점차 증가하여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오후 시간대에 이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평일과 주말 모두 오후 10시 이후 심야 시간대 이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야간에 대중교통 대체수단으로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가 이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Q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 이용 목적은?

(단위: %)

- 공유 자전거
- 공유 킥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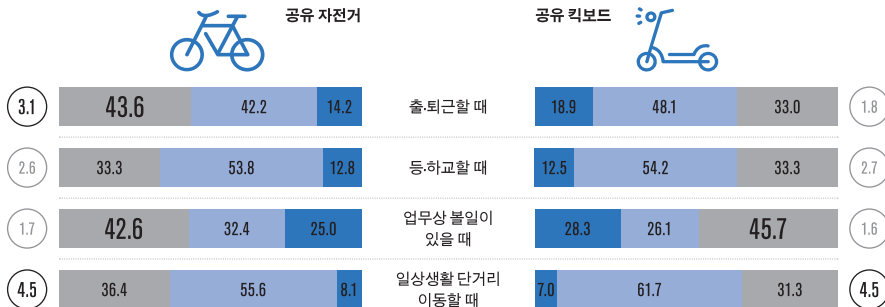
A 출퇴근 시 대중교통 연계수단으로 주로 활용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의 이용 목적은 출퇴근, 등하교 등 첨두시 필수적 통행과 업무상 불일이나 일상생활 단거리 이동 등 비첨두시 선택적 통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는 주로 첨두시 대중교통 연계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공유 자전거보다 공유 킥보드에서 특징이 두드러졌다. 첨두시 공유 킥보드 이용자의 76.7%가 대중교통 연계수단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첨두시 선택적 통행에서는 공유 킥보드 이용자의 64.8%가 대중교통 연계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 이용 이후 개인 승용차 이용 변화는?

(단위: %)

- 감소
- 변화 없음
- 증가
- 증가 대비 감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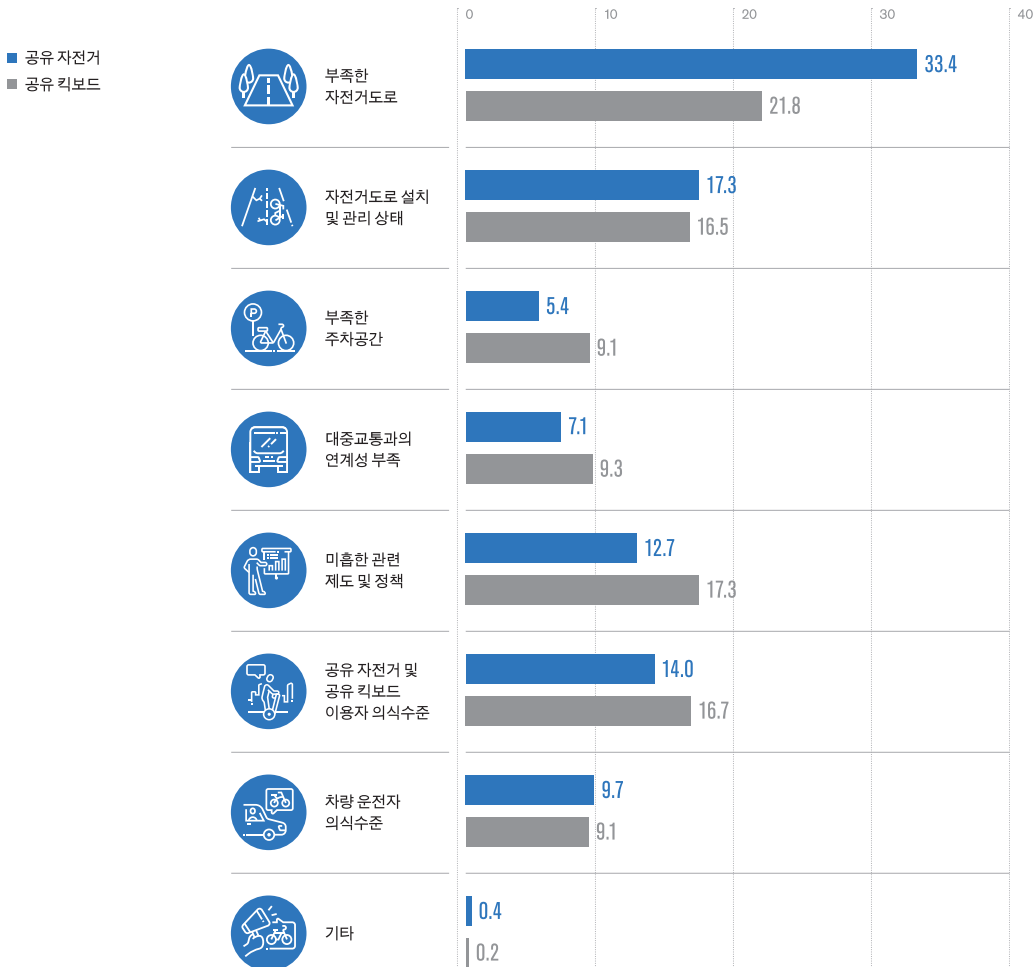


A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는 개인 승용차 대체수단으로 일부 활용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 이용 이후 개인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를 통해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의 차량 대체효과는 일부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통행 목적별로 살펴보면 공유 자전거는 출퇴근 시 차량 이용 감소 비율이 43.6%로 가장 높았으며, 증가 대비 감소비는 일상생활 단거리 이동 시일 경우가 4.5로 가장 컸다. 공유 킥보드 역시 증가 대비 감소비는 일상생활 단거리 이동 시 가장 컸으며, 업무상 불일이 있을 경우 차량 이용 감소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는 개인 승용차의 대체수단으로서 일부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Q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 이용 시 불편한 점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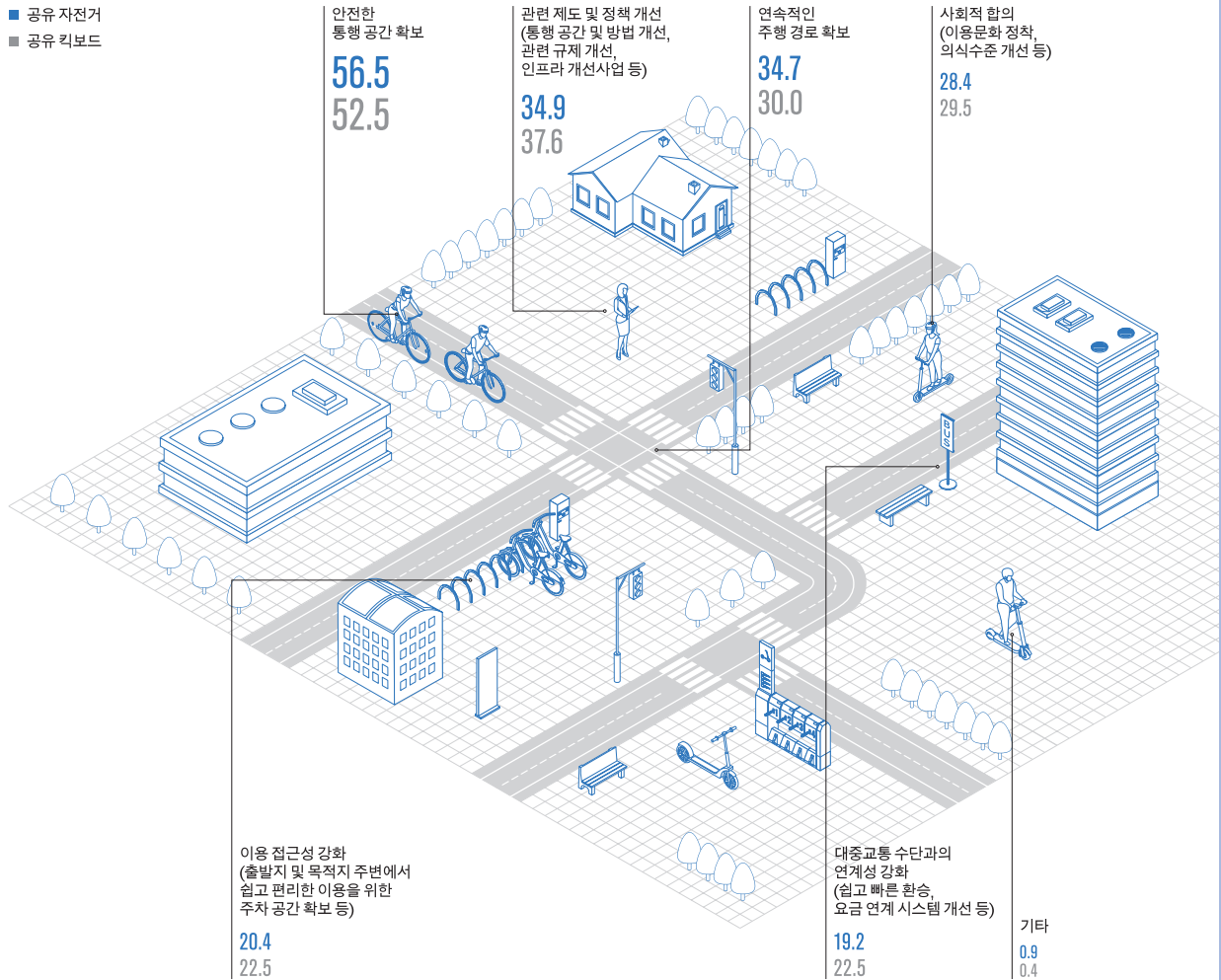
A 미흡한 자전거 인프라가 가장 큰 문제

공유 자전거(33.4%)와 공유 킥보드(21.8%) 이용자 모두 이용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족한 자전거도로'를 꼽았다. 공유 자전거 이용자는 '부족한 자전거도로'와 함께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 상태(17.3%)'를 주요 문제점이라 응답하여 절반 이상의 이용자(50.7%)가 인프라 측면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유 킥보드 이용자는 '미흡한 관련 제도 및 정책(17.3%)', '이용자 의식수준(16.7%)' 등 관련 제도 및 이용자 의식 부분도 주요 문제점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Q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단위:%)

- 공유 자전거
- 공유 킥보드



A 안전한 통행공간 확보와 함께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이 필요

공유 자전거와 공유 킥보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통행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공유 자전거 이용자 중에서는 56.5%, 공유 킥보드 이용자 가운데서는 52.5%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는데, 공유 자전거 이용자의 34.9%와 공유 킥보드 이용자의 37.6%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가 보다 활발히 이용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제도적 정비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